

<artículo + que ...>구문에 관한 연구

마 상 영
서울대, 서어학

1. 서론

<artículo + que ...>구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략구문인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 ...>구문과 관계사가 관사를 허용하고 사람과 사물을 동시에 언급하는 복합관계사인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 lo que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구문들에서 두가지 유형의 관사들은 외현적인 또는 내재적인 선행사와 성·수 일치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고 관사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선행사 없는 관계사로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lo que>구문도 엄격히 파고들어 보면 마찬가지로의 생략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즉, <lo que>구문의 lo도 관사에 지나지 않으며, 중성관사라는 점 때문에, 이 구문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통사적 특징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이 구문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본 논문을 전개하기 위해서 특정한 언어이론에 의존하지 않을 생각이며, 그 이유는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하였을 경우 상기구조의 독특한 통사적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주의문법이나 생성변형문법(지배결속이론기준)의 원리들 중 보편타당한 통사원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개념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제 언어현상을 자

1) 잘 알려져 있듯, 복합관계사의 경우 관계대명사 que는 성·수를 표현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관사에 의해 보완되어진다. Cfr. César Hernández Alonso (1975), *Sintaxis Española*, 3ª ed., Industrial Litográfica, Valladolid, pág. 311.

의적으로 선별하여 이론화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상기 구문과 같은 복잡하고 난해한 구문을 가식없이 분석·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el, la, los, las + que>구문분석

이런 구문분석에는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핵명사의 생략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 해석에서는 관사는 결코 선행사가 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관사가 대명사적 가치를 획득하여, 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que의 선행사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F. Ramírez는,²⁾ 스페인어의 관사가 라틴어의 지시사 ille에서 액센트의 약화로 유래되었다는 아이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아, 관사가 대명사로 전환(명사화 sustantivación)되었다고 주장한다.³⁾

스페인한림원(RAE, 1973)은 두가지 유형으로 <artículo + que>를 구분하고 있다:⁴⁾

-
- 2) Cfr. Salvador Fernández Ramírez (1987), *Gramática Española*, 2ª ed., 3.2 *El Pronombre*, volumen preparado por José Polo, Arco/Libros, S.A., Madrid, pág. 141, § 141/140.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모든 이러한 그룹은 매우 빈번히 나타나며, 그룹내에서 관사는 비대용사적 관사를 지닌 명사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Ibid.*, pág. 145, § 142/141, n. 2.
- 3) 같은 의견을 Antonio Briz Gómez (1989)가 제시하는 데, 그는 그의 저서 *Sustantivación y lexicalización en español (La incidencia del artículo)*, Anejo nº 4 de la Revista Cuadernos de Filología, Universitat de València, pág. 152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구문들에서 관사는 관계절의 핵이자 선행사이며, 그 증거로 이들 관사가 대상을 일깨우거나 제한하지 않을 때는 지시대명사와 공점(共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전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이미 많은 반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환(transposición: sustantivación)의 통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Cfr. S. Y. Mah (1993), *Transpositores Oracionales en Español*,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cap.I. Consideraciones Generales sobre la Transposición, págs. 5-30.
- 4) 수정없이 스페인한림원(RAE)(1974),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pág. 219의 내용을 전재한다.

선행사	관계사
I. el	que
II. 명사적 요소	el que

이러한 분류에 형식적인 다른 자료들을 부연하고 있다:

- 1^o. 몇몇 경우 (I)의 관사는 지시사(demostrativo)와 동일하며, 지시사로 대체되어질 수 있다: Lo que me dijiste = Aquello que me dijiste; El que me persigue = Ese que me persigue. 이러한 대체는 (II)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 2^o. 단지 (I)에서만 관사앞에 대명사 todo, todos ...등이 나타날 수 있다: Lo que dice = Todo lo que dice.
- 3^o. (I)에서 관사는 전치사에 의해 선행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는 데 반해, (II)에서는 이런 점이 드물거나 별로 추천할 만 하지 않다: Sancho Ramírez, el que tomó a Barbastro.
- 4^o. 단지 (II)의 el que만이 의현적 선행사와 같이 나타나는 다른 관계대명사에 의해 제한된 경우 대체될 수 있으며 (I)의 que는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La mujer de la que me hablaste = de que me hablaste = de quien me hablaste.⁵⁾

그리고 C. Hernández도 기능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⁶⁾ (I)의 경우, 관사는 전체문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 문장을 명사화하는 요소이다, 반면 (II)의 경우에는 관사는 강조적이고, 관사의 범주를 잃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지시적인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I)의 경우에 관하여, 스페인한림원과 C. Hernández의 구상은,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사는 본질적으로 행명사의 한정사(determinante)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들은 관사가

5) 스페인한림원(RAE)의 다음 의견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지막 특징은 (II)에서 el que, la que, 등을 복합관계사, 즉 표기에 의해서는 아직 인가가 되지 않은 조합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스페인한림원(RAE), *Op. cit.*, pág. 220, § 3.7.3., b), 4^o.

6) César Hernández Alonso (1975), *Op. cit.*, pág. 311.

전환소(transpositor) 또는 명사화요소(sustantivador)로 기능한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구조로 핵명사의 생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다.⁷⁾

스페인한림원과 마찬가지로, A. Bello⁸⁾도 또한 이 구문내의 관사는 명사화되어 있으며 선행사(antecedente)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J. Alonso del Río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암시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 마치 완전한 선행사와 완전한 관계사 사이에 일어나듯, 이미 지시적 가치를 지닌 관사는 주절에 소속되어야 하며 관계사는 종속절에 해당되어야 한다.”⁹⁾ 이러한 언어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의 예들을 분석해 보고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 (1) a. Allí están los que he perdido.
b. Quiere hablar con el que considera su amigo.

주절	종속절
(1a) Allí están los	que he perdido
(1b) Quiere hablar con el	que considera su amigo

위에서 볼 수 있듯, 주절은, 그 자체로는, 비문이 된다, 그 이유는 관사 los, el 이 명사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속절은 정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관계사가 명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사가 지시대명사(pronombre demostrativo)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우기, 지시대명사는 관사와는 매우 상이한 통사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런 것들 중 단적인 예 하나가 지시대명사는 그 자체로

7) 관사(artículo)가 전환소(transpositor)가 아니라는 논거들은 S. Y. Mah (1993), *Op. cit.*, pág. 23이후 § 1.3.6. Artículo: no transpositor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기존의 스페인 기능문법학자들(Alarcos이하 추종학자들)의 논리전개에 대한 반증들이 나타나 있다.

8) Andrés Bello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Litografía A. Romero, S.A., Tenerife, pág. 133, § 324.

9) J. Alonso del Río (1963), *Gramática Española*, Ediciones Giner, Madrid, pág. 270, § 361.

SN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관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어떠한 논거들이 이용될 수 있는가? 최소한 5-6가지 반증예들이 존재하고 있다:

i) 관사는 명사처럼 나타날 수 없다.

- (2) a. Los que estamos en puestos públicos lo sabemos.
b. Los que hayan realizado la mili no querrán ser funcionarios.

만약 (2)에서 관사 los가 명사처럼 기능할 수 있다면, 다음의 문장들은 정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 (2') a. * Los lo sabemos.
b. * Los no querrán ser funcionarios.

그러나 만일 생략된 명사를 가정하고 이를 복구하게 되면, 그 문장은 정문으로 바뀌게 된다.

- (2'') a. Los españoles lo sabemos.
b. Los jóvenes no querrán ser funcionarios.

이런 사실은 상기 구문에서 선행사가 관사와 관계사 que 사이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가정을 지지해 준다. 또한 이런 가정이 전제되어야 관계사화(relativización)는 두개 이상의 절이 합쳐져 이루어진다는 기본전체가 충족되어 질 수 있다.

ii) 이런 구문이 todo를 그 앞에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핵명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관사는, 명사가 아니므로, 수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todos los niños/ *todos los*).

- (3) a. Todos los que estamos en puestos públicos lo sabemos.

- b. Todos los que hayan realizado la mili no querrán ser funcionarios.

iii) 이 구문은, 가끔, 고정된 지시대상(referente fijo)을 가지고 있는데, *el libro de Juan y el (libro) de María*에서 보듯, 해명사는 상호 이해되어 진다. 이 경우 해명사는 쉽게 복구되어질 수 있으며, 이 사실은 또한 이 구문에서 관사는 지시적 가치를 지닌 명사화된 대명사라는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4) a. Con la mano opuesta a la (mano) que sostenía el auricular, Alegre estrechaba contra sí una figura yacente.
 b. El director contestará en carta personal a todos los donantes, incluidos los (donantes) que deseen permanecer anónimos.
 c. Sólo en esta zona y en la (zona) que se extiende por parte de Rusia muchas personas padecen anemia.
 d. Tal resultado es muy diferente al (resultado) que arrojan las respuestas de los líderes.

(4)에서 볼 수 있듯, 명사 la mano (4a), todos los donantes (4b), esta zona (4c), tal resultado (4d)와 동일 명사가, 관계사의 선행사로, 생략되어 있는데, 이 생략은 양자 사이의 통사적 관계(지시, 대비, 병렬연결, 등등)에 의해 허락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iv) 이런 구문에서 가끔 함축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남아 있으며, 이 형용사는 바로 그 함축되어 있는 해명사를 수식한다.

- (5) El único que sabe la solución es el notario.
 ♦ El único (hombre) que sabe la solución es el notario.

(5)에서 나타나듯, <artículo (núcleo nominal) que ...>구조는 형용사에 의해 수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artículo adjetivo (núcleo nominal) que>구문 또는 <artículo (núcleo nominal) adjetivo que>구문이 형성되어 질 수 있다.

v) 이러한 생각과 일치하여,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구문에서 핵명사 내에서 일어나듯 두 종속절이 등위접속되어질 수 있다.

(6) Son muchos los que rechazan la guerra y que regresan a casa.

* Son muchos {los hombres/ *los } + Los hombres rechazan la guerra + Los hombres regresan a casa.

이 경우 los의 명사화(sustantivación)를 상정한다면 과연 그 과정이 관계사 화보다 선행하는지 또는 후행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며, 선행한다면 논리상 los자체만으로 명사 역할을 해야하나 이는, 이미 i)에서 보았듯이, 불가능하며; 관계사화후에 명사화가 이루어진다면, 관계사화의 본질인 두개 이상의 문장이 복문화된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vi) 만약 관사가 명사화되었다면, 그것이 제한적 용법뿐만 아니라 설명적 용법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명적 용법은 이 구문과 어울릴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통칭 핵명사(núcleo nominal genérico)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통칭의 의미가 생략과는 연관을 맺으나 설명적 용법과는 양립할 수 없다. 설명적 용법은 통칭의 의미를 전제할 수 없으므로 양적 제한이 불가능하다.

(7) a. Son muchos (los que/ * los, que) rechazan la guerra.

b. Son muchos (los hombres que/ los hombres, que) rechazan la guerra.

아울러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들은 다음의 사실도 알 수 있다: 생략구문이 핵명사의 부재로 인하여 지시성(referencia)이 약화되고 그 결과 설명적 용법을 허용하지 않으나, 반면에, 이 핵명사가 복구되면 지시성도 회복되어, 이 구문은 두가지 용법을 허용하게 된다. 이 사실은 본 구문에서 관사가 지시대명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결론적으로, 이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 ...>구문에서 관사는 명사로의 전환소(transpositor)도 아니며 또한 선행사도 아니다. 관계절의 선행사인 생략된 핵명사의 단순한 한정사일 뿐이다.

이제, <artículo + que ...>구문의 또다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구문은 자주 두 갈래로 -생략구문 또는 강조구문- 해석되어질 수 있는 문장에서 발견된다:

- (8) a. Ella era la que más ligaba.
 ✦ Ella era la (chica) que más ligaba. (O ecuativa)
 ✦ Era ella la que más ligaba. (O enfática)
- b. La delegación belga fue la que se hizo con muchos cuadros.
 ✦ La delegación belga fue la (delegación) que se hizo con muchos cuadros.
 ✦ Fue la delegación belga la que se hizo con muchos cuadros.

(8)에 의하면, 인용문들은 생략되어 있으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해석 사이에는 통사적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만약 동등문(oración ecuativa)¹⁰⁾으로 해석되면,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 ...>구문으로 핵명사(núcleo nominal)가 생략되어 있으며; 반면 강조구문(oración enfática o escindida)으로 해석되면 이미 그러한 생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10) 접속구문(construcciones copulativas)은 세 유형; 즉, 서술문(atributivas), 대등문(ecuativas) 그리고 강조문(ecuacionales o enfáticas)으로 구분된다.

1) atributiva : *Ese hombre es poeta. cfr. *Un poeta es ese hombre.*

2) ecuativa: *Juan es el presidente - El presidente es Juan.*

3) ecuacional o enfática: *Fue a Juan al que vimos.*

이러한 구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J.C. Moreno Cabrera (1982), "Atribución, Ecuación y Especificación: tres aspectos de la semántica de la cópula en español", *REL*, 12, 2, págs 230-245 y _____ (1983), "Las perífrasis de relativo", en *Serta Philologica F. Lázaro Carreter*, I, págs. 455-467 y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 (1989), *Variaciones sobre la atribución*, Reedición de la edición de 1986, Contextos, Universidad de León, León, cap. III, págs. 45-84.

이유는 강조된 요소가 선행사로 기능하고 따라서 <artículo + que>는 복합관계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선행사의 인칭적 자질([± humano])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음의 예에서 보다시피 <artículo + que>구문이 비인칭으로 사용된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9) Ese encuentro es el que intrigó al Polaco.

- ◆ Ese encuentro es el encuentro que intrigó al Polaco. (O ecuativa)
- ◆ Es ese encuentro el que intrigó al Polaco. (O enfática)

따라서, 인용문은 주어와 보어(atributo)가 위치를 공점할 수 있는 동등문(oración ecuativa) 또는 <verbo ser + elemento enfatizado + artículo + que>구문의 특수한 구조를 지닌 강조문(oración enfática)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각의 해석에 상응하는 원래의 문장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동등문으로의 해석을 위해 우리는 <SN + V +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구조를 상정하고, 강조문으로의 해석을 위해서는 문장의 첫번째 위치로 강조된 요소가 다시 테마화(tematización)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강조문에서 주어의 위치는 비논항의 비가시주어(sujeto implícito no argumental: 영어의 허사주어 it에 해당)에 의해 점령되어 있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8)과 (9)의 문장의 원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

i) 동등문으로 해석되는 문장구조

(10) a. (Ella) era la (chica) que más ligaba.

b. La delegación belga fue la (delegación) que se hizo con muchos cuadros.

c. Ese encuentro es el (encuentro) que intrigó al Polaco.

ii) 강조문으로 해석되는 문장구조

11) 영어에서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나 스페인어에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운 어순이 허용되기 때문에 종종 일어난다.

- (11) a. [(Ella)]_i SN_{implicito} era h_i la que más ligaba.
 b. [La delegación belga]_i SN_{implicito} fue h_i la que se hizo con muchos cuadros.
 c. [Ese encuentro]_i SN_{implicito} es h_i el que intrigó al Polaco.

그러나 (12)에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V + SN + artículo + que ...>어순을 따르는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강조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어순이 허용되나 완전한 자의적인 뒤섞이규칙(scrambling)은 불가함을 알 수 있다).¹²⁾ 따라서 ii)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12')에서 보듯, 반드시 주체화된 요소는 휴지(pausa: #)를 그 뒤에 동반하여 억양(entonación)상 차이를 두어야 한다.

- (12) a. Será Sergio el que aparezca.
 b. Son ellos los que han faltado a la clase.
- (12') a. Sergio_i # será h_i el que aparezca.
 b. Ellos_i # son h_i los que han faltado a la clase.

그러나, 만약 <artículo + que>구문이 주어위치에 나타나면, 문장은 통사적으로 동등문 또는 강조문이며 의미론적으로 확인문(oración identificativa)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 (13) El que saluda es Tudón.
 ◆ El hombre que saluda es Tudón. (O ecuativa)
 ◆ [El hombre que saluda]_i SN_{implicito} es Tudón h_i. (O enfática)

12) 스페인한림원(RAE)은 강조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Yo lo mando*는 강조구문(부각문: cláusula con relieve)인 *Soy yo el que lo manda* o *Soy yo quien lo manda* o *Quien lo manda soy yo*, 등으로 바뀔 수가 있다. Cfr. RAE (1974), *Op. cit.*, pág. 221, Nota n.4. 따라서 스페인한림원의 의견은 이러한 경우 어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허용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강조된 요소 또는 동등문의 주어는 관계사나 또는 의문대명사에 의해 대체되어 질 수 있다:

- (14) a. Y Juan Antonio regala un toro más, que es el que torearé yo.
b. ¿Quién sería entonces el que le conocía o le esperaba?

이 경우, <artículo + que ...>구문의 관사는 관계사로 혹은 의문대명사로 변하는 요소들과 성.수일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¹³⁾

3. <lo + que + ... >구문분석

스페인한림원(RAE)은 <lo + que + ...>구문을 <el, la, los, las + que + ...>구문과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다.¹⁴⁾ 두 구문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lo는 중성이고 el, la, los, las는 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는 좀 먼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A. Bello의 주장인데, 그는 lo의 중성적 특징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lo 또는 ello가, el 또는 él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성명사(sustantivo neutro)라고 주장한다.¹⁵⁾ 다음으로 Susan Plann은 이 구문에서 lo는 불특정명사(nombre no especificado)의 한정사(determinante)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우리

13) 이러한 일치(concordancia)문제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조된 요소와 <artículo que ...>구문과의 문법범주상의 일치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s al agudo analista al que quiero hacer justicia.

이 예문에서 전치사구 al agudo analista는, 강조된 채, 전치사 a에 의해 이끌려진 <artículo + que ...> 구문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Cfr. J. C. Moreno Cabrera (1983), *Art. cit.*, págs. 455-467.

14) *Ibid.*, pág. 219, § 2.7.3.b).

15) A. Bello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지시형용사들인 *este, ese, aquel*과 *él* 또는 *el*에서 중성명사들인 *esto, eso, aquello* 그리고 *ello* 또는 *lo*가 탄생되었다.” Andrés Bello (1981), *Op. cit.*, págs. 271-271, § 312. 똑같은 아이디어를 Luis Álvarez(1982)는 그의 논문 “Las Sub-oraciones con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 lo que*”, *Letras*, 37, Venezuela에서 따르고 있다.

16) 그녀의 주장을 M. Fernández Lagunilla가 인용하고 있는 데, 인용문의 일부를 살펴보

들은 이 논거에 어느정도 수긍하며, 이제까지 제시되지 못한 다음의 주장을 제안하겠다: <lo>와 <que>사이의 생략된 범주는 SA, SADV, 및 양화사적 SN에서 추상명사로 범주전환되어 있고, lo는 이 추상명사를 이끄는 관사이다. 한편, 복합관계사 <lo que>는¹⁷⁾ 선행문 전체를 받는 연유로 구체적인 제한이 불가하여 항상 설명적 용법으로 나타난다는 점만을 지적하겠다.

3.1. 우리들의 논점

lo가 (대)명사 혹은 논항(argumento)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SN *lo bueno*와 SN *el bueno*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lo + adjetivo> 구문에서 해명사의 생략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lo (núcleo nominal) bueno*), 형용사 *bueno*에서 추상명사(sustantivo abstracto)로의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 transposición의 일종)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며, 반면 *el, la, los, las*구문에서는 생략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l (núcleo nominal) bueno*>: *el hombre bueno/ el perro bueno/ el libro bueno, ...*).

이 중성관사 lo는, lo와 que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변환된 범주의 추상적 개념 덕분에, 형용사 todo에 의해 선행되어질 수 있다:

- (15) a. Corrí todo lo (rápido) que pude, pero me cazaron.
 b. Yo puedo darte todo lo (mucho) que necesitas para demostrar eso.

(15)에서 유추되듯, 이 구문에서 lo는 생략된 추상의 범주(각각 부사 rápido와 대명사 mucho에서 추상명사로 범주전환되었음)를 한정하는 관사이며, 따라

면 다음과 같다: “Susan Plann은 [-Humano], [-Definido]와 [-Género]의 특징들을 지닌 SNs없이 쓰인 lo que절 (No me contaron lo que había pasado)에서 lo형태는 불특정명사의 한정사이다.” Cfr. Mariana Fernández Lagunilla (1983), “Las oraciones de relativo sin antecedente (A propósito de una obra de S. Plann)”,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Gráficas Cóndor, pág. 177.

17) 이 경우의 예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Aprobó el examen, lo que les agradó a sus padres.

서, todos los alumnos에서와 같이 형용사 todo에 의해 수식받을 수 있다.¹⁸⁾ 이 todo의 본질은 우리가 이 구조들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15') a. Corrí todo lo posible, pero me cazaron.

b. Yo puedo darte todo lo necesario para demostrar eso.

이러한 구문들의 구조는, todos los alumnos altos, todos los alumnos que son altos와 같은 타구문들의 구조와 동일하며, 핵명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에서 핵은 추상명사화된 SA인 posible 또는 necesario이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바로 이 구문에서 lo가 관사라는 주장이 사실로 나타난다.¹⁹⁾

우리들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 몇가지 논점들을 감히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논점들에 의하면 상기 구문이 일반적으로 범주화된 핵범주가 생략되거나 때로는 생략되지 않는 <lo (SA, SADV, SN cuantificacional) que>구문에서 유래한다.²⁰⁾ 정관사 lo는 이러한 추상화된 범주의 한정사에 불과하며, 이 사

18) 이러한 형태들의 형용사적 특성에 관해서는 María Moliner (1983),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Gredos, Madrid (H-Z), pág. 1329의 의견을 참고할 수가 있다: “Todo는 명사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용사를 특징지어 주는 것으로 명사는 항상 관사 또는 이를 대체시키는 지시형용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우기, todo가 명사를 선행할 경우 다른 형용사들처럼 관사 또는 지시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오는 대신 그 관사나 지시형용사앞에 놓여야 한다.”

19) 따라서 우리들은 스페인한림원의 다음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I)에서만이 대명사 todo, todos ...등이 관사앞에 올 수 있다: *Los que le tratan = Todos los que le tratan; Lo que dice=Todo lo que dice.*”(Cfr. RAE (1974), en su *Op. cit.*, pág. 219, § 2.7.3. b) n.2º.). <artículo + que>구문앞의 todo는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통사론에서 “대명사 + SN”연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l el profesor, éstos los profesores*, 등.

20) 이러한 생략 아이디어는 종속화(subordinación) 또는 의존(dependencia)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데, 후자에 의하면 핵의 소멸은 그의 인접소(adyacente)의 소멸을 내포하고 있다: *Vendió casas bonitas; *Vendió bonitas*.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는 몇몇 예외가 추가되어야만 한다: 만약 핵이 통사적인 관계(relación sintáctica)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면, 핵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생략된 핵이 관사의 존재에 의해 복구될 수 있다면 생략이 가능해진다: *Vendió unas casas bonitas ≠ Vendió unas bonitas*. 마찬가지로 lo와 que사이의 추상명사(sustantivo abstracto)의 내용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호 이해되어지고 그 생략이 관사 lo에 의해 보상되어 질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추상명사의 존재는 우리들이 다음에 보겠지만 또다른 추상명사들의 존재에 의해 검증

실은 이러한 추상화된 범주의 위치에 다양한 통사범주: SA, SADV, 양화사적 SN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다.²¹⁾ 이러한 통사소들 (sintagmas)은 이미 본래의 범주를 상실하고 명사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전환소 없는 (범주)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²²⁾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 구문에 나타나는 lo를 Bello는 대명사(pronombre)로 보았으나,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관사(artículo)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문제에 관한 논점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이 구문에 있는 lo가, 대명사라면 (Bello에 의하면 ello의 대격), 주어의 위치를 점할 수가 없을 것이다 (Ello nos da alegría/ *Lo nos da alegría). 그러나, 실제로 <lo que ...>구문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사실은 이 구문에서의 lo가 대명사가 아니고 관사라는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그리고 바로 그 주어위치를 점하는 것이 SN인 <lo + (추상의 생략된 핵범주)>이다.

- (16) a. Lo que no hice fue cortarme la coleta.
 b. Lo que descubrió se parecía a lo que esperaba.

되어진다.

21) Cfr. <4. 관계구문에서의 추상적 전환>편의 예문들을 증거로 들 수 있다.

22) 전환소없는 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은 어떤 범주이건 명사화를 통해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려는 화자(hablante)의 마음(mente)에 달려 있다. 보기에는, 이 전환이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의 통사소적 전환(transposición sintagmémica)과 매우 유사한데, 그는 형태론적 파생(derivación morfológica)을 통사소적 전환(transposición sintagmémica)으로 간주했다. 그의 의견을 살펴보자: “전환은 분석적(analítica) 그리고 통합적, 즉, 두가지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 두번째 경우, 범주변화가 파생(derivación)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통사소(sintagma)범위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기인하여 범주의 변화(cambio categorial)가 실현된다. 그런 연유에서 또한 transposición sintagmémica 또는 transposición derivativa라는 이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통사적 전환(transposición sintáctica)에는 그 메카니즘들이 통사소의 외부에 관한 것으로, 말하자면, 분석적, 통사적인 것이다.” Cfr.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 (1984a), “Conceptos básicos en la teoría de la transposición sintáctica”,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Servicio de publicaciones, pág. 77.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형태론적 변화가 없는, 전환소없는 또는 정신적 전환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는 <4. 관계구문에서의 추상적 전환>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만약 (16)의 구문에 나타난 lo가 대명사라면, lo는 대격(acusativo)이 아닌 주격(nominativo)이어야만 될 것이고, 명사핵으로서, 관계절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 (16') a.* Lo fue cortarme la coleta.²³⁾
- b.* Lo se parecía a lo que esperaba.

2)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대격대명사 lo는 전치격을 받을 수 없다 (*Dudo de ello/ *Dudo de lo*). 따라서 <lo que...>구문의 lo가, 만약 대명사라면, 전치격을 받는 위치에 나타날 수 없어야 할 것이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만약 이 lo가 관사라면, 그 구문은 SN인 <lo (추상명사화된 범주) que ...>구문이 되어야만 할 것이고 전치격을 받는 위치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 (19) a. Llegó a dudar de la veracidad de todo lo que le han enseñado.
- b. Lo que descubrió se parecía a lo que esperaba.

3) 만약 이 구문의 lo가 대명사라면, 그것의 중성적 특성이 남성단수에 일치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20)에서, 만약 lo가 대명사라면, que이하의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핵명사(núcleo nominal: 선행사)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두 동사 주동사와 종속동사는 남성단수에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다 (*pasó*와 *había*). 그러나,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lo (추상화된 범주) que...>구문의 추상명사화된 범주는 복수로 인식되고 주동사의 주어로 그리고 관계대명사 que의 선행사로 기능한다;²⁴⁾ 그러므로, 일치(concordancia)는 주절과 종속절에서 복수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23) 만약 부정사구문이 주어로 해석될 경우, 이 문장은 정문으로 바뀌며, 이러한 사실은 lo 또는 <lo + que...>등이 대격이 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들의 논거에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문이 주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4) 또한 일치(concordancia)가 minutos와 momentos와 더불어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이는 momentos가 <pasar a convertirse en>의 suplemento(전치사에 지배를 당하는 목적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의미적 측면에 의존하여, silepsis(의미적 조종)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cf. *La mayoría son alumnas*), 이 경우에도 주어로 사용된 <lo (SN abstracto) que ...>가 복수로 인식되기는 마찬가지다.

- (20) Lo que hasta entonces habían sido unos minutos de fútbol aceptable, pasaron a convertirse en momentos de imprecisión.

4) <lo que...>구문에 추상화된 핵범주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21)의 예문들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예문들에서는 바로 그 추상화된 핵범주 위치에 SN인 poca cosa 혹은 poco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추상화(abstracción)를 겪고, 중성관사로 lo를 허용한다. 이러한 SSNN의 추상명사화는,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관계사화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다음의 문장들의 선존(preexistencia)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l gorro era poca cosa comparado con lo que mi padre sabía 그리고 Sabía poco de sí mismo (여기 문장들에서는 SSNN poca cosa와 poco는 아직 추상화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다).

- (21) a. Pensaba lo poca cosa que era el gorro comparado con lo que mi padre sabía.
 b. Puede que no se tratara sólo de lo poco que sabía de sí mismo.

(21)에서 우리들은 추상화된 범주가 사라지지 않은 <lo + 추상명사화된 SN + que...>구조를 볼 수 있다. 대격대명사가 다른 SN을 선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lo que...>구문에서의 lo가 대명사가 아니라 관사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확인해 준다, 그 이유는 관사의 본질이 명사 앞의 위치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성관사인 lo는 추상화를 겪은 경우 어떤 통사소(sintagma)앞에나 나타날 수 있다. lo에 선행되어, SA, SADV 심지어는 SN까지도 원래의 범주자질(naturaleza originaria)를 잃고 추상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lo SA/ SADV/ SN que...>구문에서 SA/ SADV/ SN은 전환소 없는 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 또는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를 겪는다. 그러나 이 경우 관사 lo는 전환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에서 유래하는 추상적인 범주를 한정하거나 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3.2. <lo + que ...>구문의 기능들

<lo + que ...>구문은, 핵명사와 마찬가지로, SN의 어떤 위치라도 차지할 수 있다; 주어 (21a), 보어 (21b), 직접목적어 (21c), 전치격 보어 (suplemento) (21d), 상황보어 (21e), 등.

- (21) a. Lo que no hice fue cortarme la coleta.
b. Eso es lo que cobrará Reagan por dejarse entrevistar.
c. Haz lo que debas.
d. Lo que descubrió se parecía a lo que esperaba.
e. Tienes que hacer algo con lo que hay en el plato.

더우기 <lo + que ...>구조는 명사의 보어로도 나타난다. 이 경우, 그 두 명사 통사소 사이의 관계는 “명사 + 전치사 + 명사”구조와 거의 같은 현상들을 보여 준다. 말하자면, 바로 이 <lo + que ...>구조는, 선행하는 명사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의미론적 가치들을 지닐 수 있다: 주어적 가치 (22a), 목적어의 가치 (22b), 형용사의 보어 역할 (22c), 또는 과거분사의 보어 역할 (22d), 전치격 보어 역할 (22e), 등.

- (22) a. Llego a dudar de la veracidad de todo lo que nos han enseñado.
b. En esa inspección de lo que le rodeaba, sintió ya el lazo tenso.
c. Lo que descubrió era distinto de lo que esperaba.
d. De forma parecida a lo que hacen en Hollywood, daremos una medalla de oro a nuestras gentes del cine.
e. A diferencia de lo que ocurre con las demás herramientas, un ordenador es igual a cualquier otro.

아울러, <lo + que ...>구문은 또한 비동등 비교문에도 나타난다 (23).

- (23) a. Es mucho más de lo que Israel había visto en varios años.
 b. Salgo de la entrevista más tranquilo de lo que entré.

이런 비교구문들도 <lo (추상명사화된 범주) que>구조를 상정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 (23') a. Es mucho más de lo (mucho) que Israel había visto en varios años.
 b. Salgo de la entrevista más tranquilo de lo (tranquilo) que entré.

그 이유는 이러한 추정이 상기 비교구문들이 관계사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사화 이전에 2개의 단문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a. Es mucho + Israel había visto mucho en varios años.
 b. Salgo de la entrevista tranquilo + Entré tranquilo.

3.3. 기타 <lo + que ...>구문의 통사적 특징들

1) 일치(concordancia)

일반적으로 <lo + que ...>구문은, 이 관계사 que가 종속절에서 주어로 나타날 때, 단수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중성은 남성단수에 일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예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 (24) a. Se sentía dueño de lo que vendría.
 b. Lo que hasta entonces habían sido unos minutos de fútbol aceptable, pasaron a convertirse en momentos de imprecisión.

(24a)는 위의 일반적 규칙에 들어맞으나 (24b)에서는 일치가 lo나 관계대명사 que와 더불어 설정되지 않고 lo와 que 사이에 위치한 생략된 추상화된 명사와 더불어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실은 종속절과 주절의 동사형태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habían pasado 와 pasaron.²⁵⁾

2) <lo + que ...>구문의 좌측전위(dislocación a la izquierda)와 테마화(tematización)

<lo + que ...>구문은, SN로서, 테마화되거나 또는 좌측전위되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이 구문내 관계문의 한 요소가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

- (25) a. Todo lo que ocurrió después tendréis que leerlo.
- b. Al español lo que le falta en posturas le sobra en redaños.

(25a)에서, <lo + que ...>구문 전체는 좌측전위되어 있으며 문장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대격대명사 lo는, 상기 구문과 공지시관계에 있으며, 목적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5b)에 관해서는 <lo + que ...>구문내 관계절의 한 요소가 테마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테마화된 요소가 문장전체밖의 첫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lo + que ...>구문이 나타나는 문장내에서 첫위치를 점하고 그리고 그 구문의 바로 밖에 나타난다. 이 사실은 그 문장의 어순을 바꾸면 확실해진다.

- (25) b'. * Al español; le sobra en redaños lo que le falta en posturas.²⁶⁾

25) 이러한 구문분석은 이미 3.1. 우리들의 논점(cf.3))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26) 이 문장의 독특한 어순은, 보기에, 주절에 공지시통사소(sintagma correferencial) le가 존재하므로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Al español; le; sobra en redaños lo que le; falta en posturas. 이 문장에서 주제화된 요소(SP) Al español은 종속절의 le와는 관련이 없고 주절의 le와 연관을 맺고 있다.

3) 강조구문

<lo + que ...>구문은 또한 문장의 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 (26) a. La lechuga es lo que más abulta.
 b. La recuperación de la salud es lo que más interesa al rey viejo.

(26)의 구조들은 대등문(ecuativas) 혹은 강조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조문으로의 해석가능성은, 이미 우리가 <el, la, los, las que>구문에서 분석했듯이, 주제화를 가정함으로써 가능하며, 이 경우 잉여적 구조들을 제거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²⁷⁾

- (26') a. Es la lechuga lo que más abulta.
 ♦ Abulta más la lechuga.
 b. Es la recuperación de la salud lo que más interesa al rey viejo.
 ♦ Interesa más al rey viejo la recuperación de la salud.

이상으로, <lo que>구문의 여타 통사적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각각의 통사현상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론적 문제들은 언어학 분야의 기저적들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고, 본 논문의 주제가 상기구문의 통사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상기구문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7) 비강조구문은 이러한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다:

Las cosas no suelen ser lo que parecen.

* *Las cosas parecen.*

4. 관계구문에서의 추상적 전환 (transposición abstracta)

먼저, 우리들은 추상적 전환(transposición abstracta)과 전환소 Ø에 의한 전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²⁸⁾ 후자는 비록 전환소가 비가시적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반면 추상적 전환은 전환소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단지 화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두가지 유형, 즉, 파생적 전환과 통사적 전환으로 구분된다.²⁹⁾ 관계구문에서의 전환은 추상적 전환중 통사적 전환에 해당한다.

<lo + (SA, SADV, SN) + que>구문에서 추상명사로의 범주전환은 전환소 없는 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 - 통사적 전환의 일종인 추상명사화)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SA, SADV, SN 등에서 추상명사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명사적 추상화(abstracción sustantiva)라고도 명명할 수 있겠다.³⁰⁾

28) 이 구분에 관해서는 S.Y. Mah (1993), *Op. cit.*, p. 19이하 1.3.3. Transposición mediante el transpositor Ø와 1.3.4. Transposición abstracta를 참고할 수 있다.

29) 추상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파생적 전환: 이미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예: salida (p.p. ♦ N), bien (ADV ♦ N), cantar(es) (INF ♦ N)

(2) 통사적 전환: 통사면에서 중요시되며, 청자가 인식하는 한 화자는 어떤 범주에서 어느 범주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예: Hablan lento (ADJ ♦ ADV) (일명, 비형용사화전환: cf. J. Debois등)

Tiene muchas esperanzas (sustantivo abstracto ♦ sustantivo común)

이러한 추상적 전환은 통사적 위치에 따라 허용되며, 어떤 범주의 원래의 통사적 특징들을 바꾸어준다:

일치(concordancia)상실: ADJ ♦ ADV, ADJ ♦ sustantivo neutro, 등

일치(concordancia)획득: sustantivo abstracto ♦ sustantivo común, 등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L. Tesnière(1959)에 의해 traslation sans translatif란 용어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S. Gutiérrez Ordóñez(1984)에 의해 세분화되었으며 (파생적 전환(transposición derivativa)/ 통사적 전환(transposición sintáctica)), 이러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범주전환에 확대 적용되었다.

Cfr. Lucien Tesnière (196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2^a ed., Editions Kincksieck, París, pág. 380;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 (1984), "Conceptos básicos en la teoría de la transposición sintáctica",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Servicio de Publicaciones, págs. 79-80; Jean Debois y Otros (1979),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lianza Editorial, Madrid.

30) 여기서 형용사, 부사, 명사라는 용어 대신에 SA, SADV, SN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lo

4.1. SA의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가 이루어지는 <lo + SA + que ...>구문.

관계대명사 que는, María Moliner³¹⁾에 의하면, 선행사로 lo를 선행시킨 형용사나 부사를 취할 수 있다.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선행사로 나타나는 SA는 전환소없는 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을 통해 추상명사로 전환이 된다.³²⁾ 그리고 이 추상명사는 원래 형용사의 일치(concordancia)와는 독립적으로 중성관사(artículo neutro)를 요구한다.

- (27) a. La reina Sofía ha sido lo mejor que Grecia ha dado a España.
 b. Ya sé lo importante que era Zora.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의 자질은 중성화되거나 추상명사로 전환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SA앞에 중성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그 SA는, 전환소없는 전환(transposición sin transpositor)을 통해 추상명사로 전환되어, 관사 lo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구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7a)와 (27b)는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7a)는 이러한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가 관계사화(relativización) 이전에 일어났으나 (27b)에서는 관계사화에 잇따라 이러한 추상명사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사실은 관계사화 이전의 구문들을 고려하면 어렵잖게 파악

terrible costoso que era el programa, lo muy bien que cantó Juan, lo poca cosa que tenía María와 같은 구문에서 lo를 포함하지 않은 밑줄친 부분이 que의 선행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관계사화된 요소는 종속절에서 각각 독립된 통사소(sintagma)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31) María Moliner, *Op. cit.*, pág. 899.

32) 이 경우 B. Rodríguez Díez는 보어(atributo)의 주제화(focalización)를 가정하고 있으나, 이 구문이 관계사화(relativización)에 의거 형성된 복문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유는 두 구문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문제의 SA가 양구문 모두에서 보어로 쓰인게 아니라 주절이건 종속절이건 한 구문에서만 보어로 나타나며(26a,c), 나아가 양구문에서 보어로 쓰이지 않은 경우(26b)도 있기 때문이다. Cfr. Bonifacio Rodríguez Díez (1988), "Sintagmas preposicionales concordados", *ARCHIVUM*, t. XXXVII-XXXVIII, págs. 271-293.

되리라 생각된다:

- (27') a. La reina Sofía ha sido lo mejor + Grecia ha dado lo mejor a España.³³⁾
 b. Ya sé lo importante + Zora es importante.³⁴⁾

따라서, (27a)에서는 관계대명사 que가 SN lo mejor전체를 대체하나 (27b)에서는 단지 importante만을 대체하며, 선행사인 importante가 추상명사화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27b)의 경우는 관계사화과정중 잇따라 추상명사화를 겪게 되고, 이것이 감탄의 의미를 자아내게 하여, 다음에 보게 될 <lo + 부사 + que>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접감탄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나,³⁵⁾ (27a)에서는 이미 추상명사화가 관계사화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

- (27'') a. * La reina Sofía ha sido cuán mejor Grecia ha dado a España.
 b. Ya sé cuán importante era Zora.

이상으로 <lo + SA + que>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구문내

-
- 33) 관계사가 lo mejor가 아니라 mejor을 대체한다고 주장하면서, La reina Sofía ha sido mejor라는 문장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mejor(더 선풍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26a)의 문맥에서는 “lo mejor(가장 좋은 것)”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34) 여기서도, Ya sé lo importante + ??? Zora es lo importante의 과정을 혹자는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단순히 중성적 “lo importante(중요성)”를 의미하며 (26b)문장이 지니는 감탄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35) 이러한 구문이 감탄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Alarcos(1970)에서 언급되었으나, 그는 이 문제를 억양(entonación)문제로 다루었을 뿐 통사현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S.Y. Mah (1993)에서는 이 감탄의 의미를 관계사화에 이은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로 설명했으며, Alarcos(1970)에서 제시한 <lo + Adj./Adv + que>구문뿐만 아니라 <lo + 양화적 명사 또는 양화사에 의해 수식받은 명사>구문까지 추가하였다. Cfr. Emilio Alarcos Llorach (1991),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3ª ed. (5ª reimpresión) de la 1ª versión (1970), Gredos, Madrid, págs. 247-248; S.Y. MAH (1993), *Op. cit.*, págs. 249-253; 鼓直외 (1994), *Diccionario Español-Japonés*, 小學館, Japan.

의 통사 과정의 차이, 즉, 명사화와 관계사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이한 통사적 특징이 각각의 의미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4.2. SADV의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가 일어나는 <lo + SADV + que ...>구문

<lo + SADV + que ...>구문내의 SADV도 또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후 이 SADV도 추상명사화되어 중성관사 lo에 의해 수식받을 수 있다.

- (28) a. Voy a decir lo bien que lo entiendo.
 b. No entiendes lo mal que anda esto.

(28)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 <lo + SADV + que ...>구문은 또한 lo와 que 사이에 있는 통사소(sintagma)가, 그것이 어떤 범주이건 간에,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를 겪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28)에서 부사 bien, mal, 등은 자체의 통사적 색조를 잃지 않는다; 동시에 관사 lo뒤의 명사위치를 점한다. 즉, 관계사의 선행사는 lo가 포함되지 않은 부사 자체이며 이는 종속절을 역으로 분리해 보면 알 수 있다:

- (28') a. Lo entiendo bien.
 b. Esto anda mal.

즉, 이러한 문장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의 순서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독립된 문장에서 그 부사는 부사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관계사화에 의하여 주절에 내포되어지게 된다. 주절에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부사는 명사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통사적 전환, 즉,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를 겪는다. 따라서 중성관사 lo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통사과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역으로 이미 관계사화 이전에 주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Voy a decir lo bien / * No entiendes lo mal.

이 구문에서 부사는 다른 정도부사(adverbio de intensidad) muy에 의해 꾸며질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판단컨데, 그 부사의 명사화가 이미 타부사로부터 수식받은 부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 (28') a. Voy a decir lo muy bien que lo entiendo.
- b. No entiendes lo muy mal que anda esto.

더우기, 그 부사는, 이미 <lo + SA + que>구문에서 보았듯, 관계사화에 이어 추상명사화를 겪게 되고, 이 이중의 과정이 감탄의 의미를 자아내게 하여 <lo + SADV + que>구문이 간접감탄문의 의미를 갖게 한다:

- (28'') a. Voy a decir cuán bien lo entiendo.
- b. No entiendes qué mal anda esto.

<lo + SADV + que ...>구문은 명사앞 형용사 (adjetivo prenominal) todo를 동반할 수가 있으며, 이 사실로 보아 <lo + SADV + que ...>이하가 하나의 SN이고, 그 부사는 관계구문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주장이 정확함을 말해준다.

- (29) a. Antes tendría que estar todo lo cerca que pudiera de aquella orilla.
- b. Mi respuesta es todo lo clara que me permiten mis pruebas.³⁶⁾

4.3. SN의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가 이루어지는 <lo + SN + que ...>구문

가끔 양화형용사(adjetivo cuantificacional)에 의해 수식된 명사도 추상명사

36) 종속절에서 clara형태는 부사로 사용되어 claramente에 해당한다.

화(sustantivación abstracta)를 겪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원래의 통사적 가치(성.수)를 잃게 되고 중성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중성관사³⁷⁾가 이러한, 양화사적인 또는 양화형용사에 의해 수식된 추상명사화된 명사를 선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가 바로 그 양화사적 의미 덕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상명사화된 SN은 그 자체로 또는 양화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아, 양화사적 가치를 표현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 (30) a. Pensé lo poca cosa que era el gorro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b. Puede que no se tratara sólo de lo poco que sabía de sí mismo.

(30)에서 보다시피, 심지어는 SN까지 이러한 추상명사화(sustantivación abstracta)를 겪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원래의 성.수를 상실하게 되나, 의미적 가치는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명사화를 겪을 때, SN은, 어떤 것이든 간에, 중성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30b)에서 poco라는 통사소(sintagma)는, 동사 saber의 목적어로서, 양화사적 SN이나 다시 명사화를 겪게 된다. 이 구문들에서 선행사는 poca cosa와 poco이며, 일치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후 관계사 화에 잇따른 추상명사화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사화 이전의 주절과 종속절은 중성관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30') a. * Pensé lo poca cosa.
 * El gorro era lo poca cosa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El gorro era poca cosa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b. * Puede que no se tratara sólo de lo poco.³⁸⁾

37) SN앞의 lo의 이러한 출현은 이 구문에서 lo가 ello의 대격대명사(pronombre acusativo)가 아니고 관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명사(pronombre)는 다른 SN을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8) lo poco에서 poco가 형용사인 경우는 가능하나 본 예문에서는 양화명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불가능하다.

- * Sabía lo poco de sí mismo.
- Sabía poco de sí mismo.

더우기, 관계사화에 이은 추상명사화를 가정하면, 이 과정이 양화사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간접감탄문과 동일한 의미를 띄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31) a. Pensé cuán poca cosa era el gorro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b. Puede que no se tratara sólo de qué poco sabía de sí mismo.

<lo + SA + que>구문과 <lo + SADV + que>구문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도 양화사적인 SN의 관계사화에 이은 추상명사화가 중성관사 lo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lo + 양화사적 SN + que>구문이 감탄의 의미를 갖게 됨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

5. 결론

지금까지 <artículo + que>구문을, 선행사를 지닌 복합관계사와 선행사가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문으로 구분하여, 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원래 이 구문 자체가 여러가지 복합적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바, 우리들은 어느 한 이론에 치우침이 없이 보편타당한 통사원리를 바탕으로 상기구문이 지니고 있는 통사적·의미적인 특징들을 분석·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현재의 스페인어통사론이 허용하는 예문들을 인용하였다.

우리들의 언어영역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이 어느정도의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존 통사론에서 이를 파악·분석할 수 있는 가하는 문제는 언어학자라면 한번쯤 규명해 보고 싶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기존 스페인어통사분야에서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던 <lo + que>구문을 생략과 추상화라는 통사현상을 통해 접근하여 보았다. 상기 구문에 대한 기존의 통사분석들에서 다루지 못한 추상화과정 등을 도

입, 새로운 분석가능성을 검증을 통해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우리는 관계사화에 이은 추상명사화를 <lo + SA, SADV, SN + que>구조의 여러 구문들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 물론 이러한 통사현상들이 자의적인 이론적 편견에 의해 치부되거나 선별 연구되어지는 오류를 지양하여, 살아있는 통사분석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관해서는 더욱 정진하여 보다 더 정밀한 통사적 자료와 언어학적 원리를 근거로 명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Alarcos Llorach, Emilio (1991),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3ª ed. (5ª reimpresión) de la 1ª versión (1970), Gredos, Madrid.
- Alonso del Río, J. (1963), *Gramática Española*, Ediciones Giner, Madrid.
- Álvarez, Luis (1982), "Las Sub-oraciones con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 lo que*", *Letras*, 37, Venezuela, págs. 11-26.
- Bello, Andrés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Litografía A. Romero, S.A., Tenerife.
- Briz Gómez, Antonio (1989), *Sustantivación y lexicalización en español (La incidencia del artículo)*, Anejo nº 4 de la Revista Cuadernos de Filología, Universitat de València, Valencia, España.
- Debois Jean y Otros (1979),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lianza Editorial, Madrid.
- Fernández Lagunilla, Mariana (1983), "Las oraciones de relativo sin antecedente (A propósito de una obra de S. Plann)",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Año 13, Gráficas Cóndor, págs. 175-187.

- Fernández Ramírez, Salvador (1987), *Gramática Española*, 2ª ed., 3.2. *El Pronombre*, volumen preparado por José Polo, Arco/Libros, S.A., Madrid.
-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 (1984), “Conceptos básicos en la teoría de la transposición sintáctica”,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Servicio de publicaciones, págs. 63-86.
- _____ (1989), *Variaciones sobre la atribución*, Reedición de la edición de 1986, Contextos, Universidad de León, León.
- Hernández Alonso, César (1975), *Sintaxis Española*, 3ª ed., Industrial Litográfica, Valladolid
- Mah, Sang Young (1993), *Transpositores Oracionales en Español*,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Madrid.
- Moliner, María (1983),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Gredos, Madrid.
- Moreno Cabrera, J.C. (1982), “Atribución, Ecuación y Especificación: tres aspectos de la semántica de la cópula en español”, *REL*, 12, 2, págs. 230-245.
- _____ (1983), “Las perífrasis de relativo”, en *Serta Philologica F. Lázaro Carreter*, I, págs. 455-467.
- RAE(1974),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 Rodríguez Díez, Bonifacio (1988), “Sintagmas preposicionales concordados”, *ARCHIVUM*, t. XXXVII-XXXVIII, págs. 271-293.
- Tesnière, Lucien (196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2ª ed., Editions Kincksieck, París.
- 鼓直 외 (1994), *Diccionario Español-Japonés*, 小學館, Japan.

Estudio sobre la construcción <artículo + que ...>

Sang-Young, Mah

En este trabajo, hemos tratado de analizar la construcción <artículo + que ...>, para lo cual hemos empleado no una teoría sintáctica determinada sino las más universales admitidas por la mayoría de los lingüistas. Este objetivo nos obliga a investigar los datos concernientes sin ningún prejuicio teórico, y a buscar una solución sintáctico-semántica de la misma construcción.

Nuestra hipótesis se basa en que la misma construcción representa dos tipos de estructura sintáctica: una de elipsis -<artículo + (núcleo nominal) + que> y otra de relativo complejo. Nos hemos ocupado de la primera y hemos propuesto un nuevo análisis mediante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o, mejor dicho, transposición sintáctica). Para el análisis de la construcción <el, la, los, las + (núcleo nominal) + que>, primero, hemos propuesto 6 argumentos favorables a nuestra hipótesis:

- 1) Es imposible que el artículo aparezca como un sustantivo:
 - * *Los lo sabemos/Los españoles lo sabemos/Los (españoles) que estamos en puestos públicos lo sabemos.*
- 2) El adjetivo *todo* ante esta construcción supone la elipsis del núcleo nominal:
 - * *todos los / todos los españoles Todos los (españoles) que estamos en puestos públicos lo sabemos.*
- 3) A veces la elipsis del núcleo nominal se identifica por el referente

fijo recuperable y la misma elipsis es permitida por las relaciones sintácticas como la referencia, el contraste, la coordinación, etc.:

* *Sólo en esta zona y en la (zona) que se extiende por parte de Rusia muchas personas padecen anemia.*

4) Algunas veces se queda el adjetivo, modificador del núcleo nominal, lo que supone la elipsis de éste:

* *El único (hombre) que sabe la solución es el notario.*

5) La coordinación de dos oraciones subordinadas en la misma construcción también apoya nuestro primer argumento (cf. 1)).:

* *Son muchos los + Los hombres rechazan la guerra + Los hombres regresan a casa Son muchos los (hombres) que rechazan la guerra y que regresan a casa.*

6) Si el artículo fuera sustantivado, éste podría aparecer tanto en la construcción relativa restrictiva como en la explicativa. Pero, en realidad, no es compatible con la explicativa:

* *Son muchos {los que/ * los, que} rechazan la guerra. Son muchos {los hombres que/ los hombres, que} rechazan la guerra.*

Y, luego, hemos analizado las características sintáctico-semánticas de la misma construcción, dividiéndola en la enfática y la ecuativa:

Ella era la que más ligaba.

✦ *Ella era la chica que más ligaba (O ecuativa).*

✦ *Era ella la que más ligaba (O enfática).*

En cuanto a la construcción <lo + que> (salvo el relativo complejo *lo que*), hemos propuesto una elipsis del SN sustantivado entre el artículo *lo* y el relativo *que*. Con 4 contraargumentos siguientes, hemos rechazado la opinión de A. Bello y otros de que *lo* en esta construcción es pronombre:

- 1) Si lo en esta construcción fuera pronombre acusativo, no podría ocupar la posición del sujeto; pero, la construcción <lo + que...> puede aparecer en la misma posición: *Ello nos da alegría/ *Lo nos da alegría / Lo que hizo nos da alegría.*
- 2) El pronombre lo no puede ser término de la preposición. Al contrario, dicha construcción sí lo puede ser: *Dudo de ello/ *Dudo de lo/ Dudo de lo que no ha dicho.*
- 3) Si lo en la misma construcción fuera pronombre, su naturaleza neutra requeriría que la concordancia fuera masculina y singular; pero, esta suposición a veces no es vigente: *Lo que hasta entonces habían sido unos minutos de fútbol aceptable, pasaron a convertirse en momentos de imprecisión.*
- 4) La suposición de la existencia del SN abstracto entre <lo> y <que> aparece sostenida por la existencia real de éste en el mismo lugar: *Pensaba lo poca cosa que era el gorro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En conclusión, hemos supuesto una elipsis del SN abstracto entre <lo> y <que>, transcategorizado por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Para averiguar esta elipsis y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hemos acudido a los ejemplos de estructura <lo + SA, SADV, SN cuantificacional + que>, los cuales son aceptables en la sintaxis actual. En cuanto a las construcciones de estructura <lo + SA + que>, hemos supuesto dos tipos: (i) uno basado en la relativización de <lo + SA> y (ii) otro en la relativización de sólo <SA> a la que sigue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del mismo que permite la lectura exclamativa:

- i) *La reina Sofía ha sido lo mejor + Grecia ha dado lo mejor a España.*
 - ♦ *La reina Sofía ha sido lo mejor que Grecia ha dado a España.*
 - ♦ * *La reina Sofía ha sido cuán mejor Grecia ha dado a España.*
- ii) *Ya sé lo importante + Zora era importante.*

- ♦ *Ya sé lo importante que era Zora.*
- ♦ *Ya sé cuán importante era Zora.*

En el análisis de las construcciones <lo + SADV + que> y <lo + SN cuantificacional + que>, también es viable nuestra segunda suposición de que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ocurre precedida por la relativización:

- i) * *Voy a decir lo bien + Lo entiendo bien.*
 - ♦ *Voy a decir lo bien que lo entiendo.*
 - ♦ *Voy a decir cuán bien lo entiendo.*
- ii) * *Pensé lo poca cosa + El gorro era poca cosa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 ♦ *Pensé lo poca cosa que era el gorro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 ♦ *Pensé cuán poca cosa era el gorro comparado con todo lo que mi padre sabía.*

Así que podemos darnos cuenta de que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tiene lugar en el proceso de la relativización (puesto que ambas oraciones originarias no admiten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y añaden a la oración compuesta una lectura exclamativa. Además nos hemos advertido de que el SN que sufre esta transposición abstracta debe ser un cuantificador o debe llevar un modificador cuantificacional.

En conclusión, la construcción <lo + (SA, SADV, SN) + que> puede comprender la relativización de dos SSNN sustantivados u otra relativización seguida por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que permite la lectura exclamativa. Al fin y al cabo, la sustantivación abstracta ejerce un papel importante en la sintaxis y la semántica. Creemos que nuestra argumentación nueva sirve para analizar dicha construcción, y nos esforzaré a desarrollar este tipo de análisis con más evidencias objetivas sin ninguna discriminación teórica.